

## 색채어은유의 인지언어학적 대조연구

-영어, 한국어, 중국어의 시각적 보편성과 양적스키마를 중심으로-

주보현 · 박기성\*\*

### Abstract

Ju Bohyun · Park Kiseong. 2017. 3. 31. **A Cognitive Study on Color term Metaphors in English, Korean, Chinese: Focused on Visual Universals and Quantitative Scheme.** *Bilingual Research* 66, 183-216. There have been various comparative studies on color metaphors and their general conclusion is color is a difficult concept to figure out without culture-specific factors. But, considering Wierzbicka(1990, 2006, 2008)'s suggestion that 'color' is not a universal human concept and 'seeing' is rather universal phenomenon in all cultures, this paper attempts to outline some alternative aspects to understand color term metaphors based on visual scheme: brightness and saturation. In this paper, to explore visual universals in cross culture, the prototypes and the usages of WHITE, BLACK, YELLOW in English, Korean, Chinese are analyzed. First, it is claimed that the natural prototypes can be categorized into having bright property(light-emitting, reflectivity, illumination, vividness) or not. It is also revealed that good(positive) meanings are based on a manifestation of the bright characteristic of color, bad(negative) values are associated with absence of brightness in all three languages. (Pusa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Color term metaphor(색채어 은유), visual universals(시각적 보편성), prototype(원형), brightness(명도), saturation(채도), meaning value(의미 가치)

---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보현(제1저자), 박기성(교신저자)

## 1. 서론

Berlin과 Kay(1969)가 색채어 위계의 보편성을 주장한 이후 색채어 연구의 화두는 ‘*What is the meaning of color?*’였다. 우리가 색채어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러 학자들(Biggam 2012, Wyler 1992, Wierzbicka 1990, 1996, 2008) 중 Wierzbicka는 *color*라는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의 화자들도 ‘무엇과 같은(X is like Y)’의 방식으로 다수의 색명이 존재하는 언어의 화자들과 동일하게 색을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즉, 색명의 부재가 개념의 부재가 아님을 지적하며 모든 언어에 ‘보다’와 같은 시각적 행위의 동사가 존재하므로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가’, 다시 말해 ‘시각적 보편성(visual universals)’을 토대로 색채어를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언어 사전에서 **WHITE**)를 눈이나 우유, 종이와 같은 색으로 정의하는데 이처럼 외연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고려한다면 색채어 의미에 지시체에 대한 시각적 경험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어떤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이의 얼굴을 묘사할 때 ‘종이상처럼 하얗다’와 같은 표현은 어색하지 않지만 ‘눈처럼 하얗다’는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는 동일 색상 범주에 있는 지시체이더라도 지시체의 고유기능이나 내재적 속성의 차이에 따라 함의(connotation)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서도 색채어와 사물간의 관계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sup>2)</sup>.

색채어의 확장의미에 관한 국내 대다수의 비교연구(마희화 2009, 박경

1) 본 연구에서는 영어의 하얀색을 지시할 때는 *white*를 쓰고 중국어의 경우 *bai*(白)와 같이 발음(한자)의 형식으로 기재할 것이다. 세 언어의 하얀색(*white*, 희다, 白)을 모두 통칭할 때는 **WHITE**를 써서 용어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2) 그러나 Wierzbicka가 색채어의 기본의미를 정의한 시도는 모든 언어에 보편적인 기본원소로 수많은 개념을 설명하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각 색채어의 은유적 의미를 기본의미와 연계하여 설명한 부분은 없다.

선 2001, 우박 2011, 유길문 2009, 세연령 2013, 주보현 2015)는 WHITE, BLACK과 같은 기본 색채어(basic color term)를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동일한 색채어라도 문화적으로 사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유사한 결론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색채의 3요소 중에서 색상을 중심으로 비교되었고 특히 기본 색채어는 색 범주의 대표색명이므로 문맥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예를 들어 Evans(2009: 128)는 *The teacher scrawled in red ink all over the pupil's homework*와 *The red squirrel*의 두 red는 선명한 빨강(vivid red)과 갈색의 빨강(brownish red)으로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는 색상의 밝고 어두운 정도 혹은 선명하고 희미한 정도로 요약되는 색채어의 양적스키마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뜻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색채어의 기본의미를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색채어 지시체의 내재적 속성과 색채어의 양적스키마를 중심으로 세 언어 색채어의 은유적 확장과정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양상에 집중할 것이다. 국내 및 중국학계에서 영어와 한국어 혹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색채어 은유 비교연구가 다수 있으나 국내외 모두 위 세 언어를 비교한 연구는 드물고 색채어 간 보편적 특징을 탐구한 경우는 거의 없다.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기본 6색(WHITE, BLACK, RED, YELLOW, GREEN, BLUE)을 모두 연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지면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세 언어의 WHITE, BLACK, YELLOW를 연구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WHITE와 BLACK의 확대의미는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었으나 원형사물과 기본의미와의 연계성 대신 색상의 유사함이 은유적 표현을 발생시킨 것으로 설명되었고, YELLOW는 영어나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에서 원형 선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색채어 연구에서 제외된 적이 많았다. 본 연구는 많은 관심을 받았던 대상과 심도 깊은 논

의가 불가했던 주제 사이에서 은유확장의 공통분모를 찾는 시도이자 새로운 시각에서 기존의 연구를 재고찰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다음 2장에서는 색상중심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색채의 양적 스키마의 특징을 알아보고 색채어 기본의미에 원형사물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고찰한다. 본 연구의 본문은 3장과 4장으로 먼저 3장에서는 색채어와 사물간의 관계를 통시적, 공시적 관점에서 고려하여 색채어의 기본의미를 구체화한다. 이어 4장에서는 각 색채어 은유를 발광, 빛 반사, 표면의 반짝임, 채도의 감소와 같은 양적스키마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의미가치를 고찰한다. 마지막 5장은 결론이다. 색채어 은유적 사용의 예는 사전과 코퍼스의 예문을 참고하였다. 색채어의 주요기능은 기술(description)과 분류(classification)이므로 코퍼스<sup>3)</sup>상에서 은유적 사용의 예문이 많지 않아 통계적 분석은 하지 않았다.

##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색상 중심의 색채어 비교연구의 특징과 제한점을 살펴본 후 색채어의 양적스키마의 특징을 Biggam(2012)에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Wierzbicka(1990)를 중심으로 색채어의 의미를 ‘무엇을 보는가’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을 논의한다.

---

3) 한국어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현대한국어 용례검색기를 사용하였다. 중국어는 <북경대학 중국언어학연구중심코퍼스>를, 영어코퍼스는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를 참고하였다. 한국어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을, 중국어는 <진명한어사전>, <신화사전>, <네이버 중국어사전>을 이용하였다. 영어사전은 OED(Oxford English dictionary)을 이용하였다.

## 2.1 색상 중심의 선행연구

인간은 색상, 채도 명도의 3요소를 통해 색의 변화를 인지한다(문은배 2011: 22). 우리는 색깔의 예로 하얀색, 빨간색 등을 나열하는데 엄밀히 말해 이는 색의 요소 중 하나인 색상이다. 채도의 일반적 정의는 색의 선명한 정도를 뜻한다. 명도는 색상과 관계없이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낸다. 세 가지 색채스키마는 다시 질적(qualitative)부류와 양적(quantitative)부류로 구분된다(Lawrence 2014: 204). 예를 들어 빨간색, 파란색과 같은 색상은 질적으로 상이한 속성이나 채도와 명도는 ‘얼마나 많은가’의 개념이므로 양적부류에 속한다.

국내 색채어 비교연구(김지인 2010, 마회화 2009, 박경선 2001, 우박 2011, 유길문 2009, 세연령 2013, 주보현 2015)와 중국학계의 색채어 은유의 문화적 함의 연구(金容云2009, 廖正刚2011, 薛亚红 2013, Li 2011, Wang 2012, Xing 2009)는 색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영어권에서 한국어나 중국어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경우는 찾기 어렵지만 Allan(2009), Pakula(2010), Philip(2011) 등의 연구에서도 색상을 기준으로 색채어의 내포적 의미를 기술하였다.

색상 중심의 비교연구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김지인(2009)과 Xing(2009)의 일부내용에서 살펴보자. 먼저 김지인은 코퍼스 예문을 분석하여 영어와 한국어 색채어의 의미항목을 분류하였고 다음 <표 1>은 WHITE에 대한 것이다.

<표 1> Extended Meanings of WHITE in English and Korean Color Terms  
(김지인 2009: 69)

Extended Meanings	English	Korean
(OF) WHITE PEOPLE	white English	paykin
PALE(DUE TO FEAR)	white-faced white-lipped white livered	ansayki hayahkey pyenhata ipswli hayahkey kwutta
GOOD	white lie white market white sheep white magic white knight	-
SURRENDER	white flag	paykki
COWARDICE	white feather	-
BURDEN	white elephant	-
EMPTY: VACANT	-	payksu paykchi aelissoki hayaycita

김지인은 영어의 예는 주로 고정된 표현인 관용어구에서 찾은 반면 한국어의 예는 하얗다(hayahta)와 백(payk)등을 포함한 술어구조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두 언어에서 동일한 의미항목의 유무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어와 영어의 확장의미를 비교한 Xing(2009)의 내용 중 일부를 <표 2>에서 보자.

<표 2> Semantic functions of color terms in Chinese and English  
Xing(2009:9)

Color	Chinese	English
<i>bái</i> 白 white	<i>xuěbái</i> 雪白 “snow white” <i>jiébái</i> 洁白 “pure & clean” <i>báifèi</i> 白费 “in vain” <i>báiyǎn</i> 白眼 “d disdain” <i>báijūn</i> 白军 “anti-revolutionary army” <i>báishì</i> 白事 “funeral”	white as snow white flag of truce white wedding white liver white lie

<표 2>에서는 중국어의 WHITE가 ‘snow white’라는 기본 의미에서 ‘pure, in vain, disdain, anti-revolutionary army, funeral’과 같은 의미로 확장되며 영어에서는 ‘in vain, funeral’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항목이 없음을 의미항목에 대응하는 예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연구는 색채어 의미확장의 결과를 중심으로 언어 간 의미항목의 동일성과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는 각 언어 색채어의 다의성을 보여주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의미항목의 예가 없는 경우는 각 언어의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색채어의 기본의미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과 색채어 은유를 유발하는 요소에 관한 논의가 부족해진다는 단점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색채어 연구의 범위를 양적스키마로 확장시키고 ‘보는 행위’라는 인류의 보편적 경험에서 색채어의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의 이해에 필요한 색채어의 양적스키마를 살펴보자.

## 2.2 색채어의 양적스키마

본 절에서는 Biggam(2012)이 제안한 색채어이론 메타언어를 기준으로 양적스키마의 특성을 살펴보고 명도와 채도의 개념을 이용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비교한다.

Biggam(2012: 200)은 색채어의 양적스키마를 빛나는(shining)과 선명함(vividness)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brightness*로, 후자는 *satu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때 빛나는 성질인 *brightness*는 발광, 반사, 표면조도, 공간조도로 세분화된다. 발광은 ‘눈이 멀 정도’→ ‘강하지만 시각적으로 편안함’ → ‘빛의 강도가 낮은’의 세 단계이다. 반사 정도는 표면물질의 빛 반사와 유관한데 ‘매우 반짝이는’ → ‘광택이 있는’ → ‘반사정도가 없는’ 3단계로 구분된다. 표면조도는 ‘매우 빛나는’과 ‘빛나지 않는’의 두 단

계로 구분하며 일정한 조명 하에서 물체의 표면이 빛나는 정도이므로 반사와는 구분된다. 공간조도는 방과 같은 공간에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 ‘아주 밝은’, ‘어두침침한’, ‘매우 어두운’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한다. 색상의 선명함은 *saturation* 항목으로 분류하고 ‘매우 선명한’ → ‘중간의’ → ‘탁한’의 단계를 설정하였다.

양적스키마를 색채어 원형연구에 접목시킨 연구는 Wierzbicka(1990), Tokarski(2004), Pakuła(2010), Popovic(2007)가 있다. Wierzbicka(1990: 302-310)와 Pakuła(2010: 1376)는 *black*과 *white*의 원형은 *milk*나 *coal*과 같은 자연사물의 색상에 국한되지 않고 빛과 어둠 혹은 낮과 밤이라는 요소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Tokarski(2004: 59)는 *grey*의 원형을 *day, morning, rain, cloud*는 양적부류로 늑대, 고양이, 쥐와 같은 동물의 털색은 질적관점으로 구분하였다. Tokarski의 양적부류에는 채도와 명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털색과 환경적 요소를 따로 분류한 것에서 색상과 그 이외의 요소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Popovic(2007)는 (1)광원 (2)표면의 반짝임 (3)동일 색상 중 밝은 색상을 지시하는 개념을 모두 [*radiant*]자질로 분류한다. 이 연구에서도 채도와 명도의 특징을 하나의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19세기 슬라브언어에서 색채어 지시체가 가진 *radiant*자질이 긍정과 부정의 의미항목과 유관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명도와 채도를 지칭하는 공통적인 용어는 발견할 수 없지만, 색채어 원형사물을 색상의 관점과 양적스키마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색채어 의미를 양적스키마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이유는 많은 선행연구가 색상이라는 질적스키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동시에 양적스키마가 보는 행위와 매우 유관하기 때문이다. 시각행위의 전제조건은 빛이며, 가시광선이라는 빛에 의해 색이 존재하므로 빛과 색은 서로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한 범주에서 가장 선명하고 밝



은 색은 그 범주의 초점색(focal color) 혹은 대표색으로 여기는 반면 (Roberson et al 2000: 395), 탁하고 어두워질수록 색상의 구분은 어려워지고 오히려 유사한 색으로 여기게 된다. 즉, 빛나는 속성과 색의 선명함과 같은 양적스키마는 하나의 색이 다른 색과 질적으로 상이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 2.3 원형사물과 시각적 경험

Wierzbicka(1990, 2006, 2008)는 색명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집중하여 색채어의 의미를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논지를 ‘시각적 보편성’ 혹은 ‘시각의미론(visual semantics)’이라고 기술한다. ‘보는 행위’로 정의되는 색채어 의미에는 표현의 지시물에 대한 객관적 자질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Wierzbicka는 영어의 *green*과 웨일스어의 *gwyrdd*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X is green=

in some places many things grow out of the ground  
when one sees things like X one can think of this

X is gwyrdd=

in some places many things grow out of the ground  
at some times there is water in these places (after rain)  
when one sees things like X one can think of this

(Geeraerts 2013: 186에서 인용)

두 언어 모두에서 GREEN은 누군가가 땅위에 자라난 많은 것들을 볼 때 GREEN이라는 색을 생각하게 된다고 기술하였다<sup>4)</sup>. Wierzbicka는 초기

에는 *green is like grass*와 같이 ‘색채어의 원형(prototype)과 같은 색’으로 색채어의 기본의미를 정의하였으나 원형을 보는 행위로 수정하였다. 이때 원형을 가정한다는 것은 동일한 색채어 범주 내의 다양한 사물들이 사람들의 경험과 정서 촉발에 동일한 영향력을 가진 것이 아님을 뜻한다. 원형은 화자들 간의 ‘공유된 경험’ 혹은 ‘공유된 인지적 시나리오’여야 하므로 색채어 원형은 시각으로 지각되는 자연환경의 대상으로 제한한다(이정애 2008: 156).

그런데 두 정의에서 웨일스어 *gwyrdd*는 ‘비가 온 뒤(after rain)’와 같은 표현이 추가되어 비를 충분히 맞은 식물에서 연상되는 색으로 영어 *green*보다 더 밝고 신선한 녹색으로 느껴진다(Geeraerts 2013: 185). 즉, Wierzbicka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녹색이라고 말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와 같은 개념의 인지적 내용을 함께 포착하여 언어 사용에 화자들의 경험을 반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면 색채어 연구는 그 색으로 인지되는 사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물과 사물의 특성을 화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다음 3장에서는 세 언어에서 WHITE, BLACK, YELLOW가 어떤 사물과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 3. 무엇을 보는가: 어원과 설문자료 결과를 중심으로

세 언어의 WHITE, BLACK, YELLOW의 기본의미를 정의하기 위해 각 언어의 화자들이 세 종류의 색채어를 무엇을 색으로 생각하는가를 고찰해보자. 먼저 각 색채어의 어원론적 해석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희다’는 태양광선의 색채에서, ‘검다’는 밤하늘의 색채로서

4) 이 정의에서 직접적으로 *vegetable*이나 *plant*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땅 위에 자라난 것들’이라는 표현으로 풀어 설명한 이유는 Wierzbicka가 모든 언어에 존재하는 보편적 원소로 언어의 의미를 치환하려는 목표를 가지기 때문이다.

‘검댕이, 검딤영’과 같은 생활에 밀착된 사물에서 개념이 형성되었고, ‘누르다’는 땅의 색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데 큰 이견이 없다(이정애 2008: 162). 영어 *white*의 어원은 *radiant, bright, shine, light*의 유의관계에 있고 *black*은 *ink, dark* 그리고 마지막 *yellow*는 *golden, shine*의 의미였다<sup>5)</sup>. 중국어는 <설문해자>의 해석을 기준으로 *bai*(白)는 해(日)위에 햇빛을 뜻하는 丿가 합쳐진 것이며(Zeng과 Yuan 2015: 51, Chong 2008: 10), *hei*(黑)는 자형을 분석하면 불꽃이 타오르면서 굴뚝을 그늘리는 모습이다(Chong 2008: 14). 마지막 *huang*(黃)은 가운데 발 전자를 중심으로 땅의 색으로 해석한다(유춘정 2013: 21).

세 언어의 색채어 어원에서 자연적 대상물과의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HITE**의 어원은 모두 광원인 해의 유의어격인 빛의 속성과 유관하며 **BLACK**의 어원은 그늘음, 잉크와 같은 어두운 색이며 **YELLOW**는 영어에서는 광원인 해의 색이지만 한국어와 중국어는 땅의 색으로 본다. 통시적 관점에서는 세 언어의 색채어 원형이 모두 자연물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는 현대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한국어의 색채어는 이미 형태상으로 많은 변화를 거쳤으므로 공시적 관점의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평균 20대의 원어민화자들<sup>6)</sup>이 세 종류의 색채어를 무엇과 연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음 <표 3>은 언어별 색채어 연상단어 비교결과표이다. 언어별 참여인원의 수가 중국어(45), 영어(65), 한국어(105)로 동일하지 않은 이유로 전체 응답 중 분포율(%)을 기준으로 순위를 표시하였다. 색채어와 연상되는 어휘를 자유롭게 기술하는 과제로 구체적인 사물 및 감정이나 느낌과 유관한 추상적 어휘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어원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자연물 어휘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5) <online etymology dictionary> 참조

6) 영어권 화자들은 영국, 미국, 호주국적이며 중국어 화자들은 K대학의 한국어학당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한국어 화자들은 P대학과 D 대학의 학생들로 이루어졌다.

먼저 WHITE의 응답을 살펴보자. 자연사물에서는 공통적으로 눈(snow, 雪)과 구름(cloud, 云)이 있다. 이 외에 중국어에서는 벽, 영어와 한국어에서는 종이가 제시되었다. <표 3>의 상위 5순위의 어휘 외에 드레스, 우유와 같은 일회성에 가까운 단어들이 많았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반의어인 BLACK의 상위결과와 비교하면 세 언어의 화자들은 BLACK을 어둠(dark, 黑暗)과 밤(night, 夜晚)으로 가장 많이 연상한 반면, WHITE는 빛이나 낮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세 언어의 색채어 원형 중에서 유일하게 WHITE만이 세 언어 모두에서 광원으로 일치하였고, 표준색체계에서 *white*를 ‘백색’이라는 색상과 최고의 밝기로 구분한다(문은배 2011: 230)는 점을 고려한다면 화자들의 설문자료 결과에 빛이라는 어휘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특히 중국어에서 ‘낮’은 bairi(白日), baitian(白天)로 bai(白)가 직접적으로 빛과의 연관성을 표현하고 있다. Zeng과 Yuan(2015: 52)이 햇빛은 다양한 파장으로 구성되어 색이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설명한 것을 참고한다면 세 언어에서 WHITE는 빛의 속성에서 사물 표면의 색상으로 전형성이 변화한 듯 하다.

<표 3> 언어별 색채어 연상단어 상위5순위 비교결과표

		Chinese		English		Korean	
색채어	순위	어휘	분포율	어휘	분포율	어휘	분포율
WHITE	1	云	12.5	snow	13.2	순수	10.77
	2	干净	10.83	cloud	12.16	구름	9.53
	3	雪(花)	7.5	paper	10.58	*깨끗함 <sup>7)</sup>	8.61
	4	纯洁	5.83	peace	7.4	종이	4
	5	墙	4.16	purity	7.4	눈	3.38
BLACK	1	夜晚	10.41	night	16.75	어둠	11.36
	2	黑暗	6.25	dark	15.08	밤	5.39
	3	头发	6.25	death	4.46	머리카락	5.11
	4	邪恶	4.16	coal	3.91	악마	3.40
	5	死亡	3.12	hair	3.35	죽음	3.12
YELLOW	1	太阳	7.44	sun	25.8	병아리	7.14
	2	温暖	4.25	lemon	9.09	개나리	5.71
	3	金子	4.25	banana	6.34	어리다	5.42
	4	香蕉	3.19	flower	5.58	바나나	5.42
	5	橙子	3.19	happy	5.58	유치원	4.85

세 언어의 WHITE와 연상된 사물들을 색채스키마의 범주로 구분하면 색상 중심의 벽, 종이, 우유, 드레스, 구름 범주와 빛 속성을 가진 눈, (햇) 빛 범주가 될 것이다. 이 때 눈은 해와 같은 광원처럼 설명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의 빛 반사와 발광의 특성을 가진 동시에 벽, 종이, 우유 등과 유사한 하얀색상의 범주로 인식되므로 질적스키마의 성격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 언어의 WHITE는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X is like Y 구문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세 범주의 WHITE로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Biggam(2012)의 제안에 따라 빛의 속성과 색상은 각각

7) 깨끗하다, 깨끗한, 깨끗, 깨끗함은 모두 ‘깨끗함’ 범주에 포함시켰다. 영어의 pure, purity는 ‘purity’ 범주로 분류하였다.

*brightness*와 *hue*로 기술하고 기술의 간결성을 위해 +, -를 사용하였다<sup>8)</sup>. 예를 들어 **WHITE is like light**는 빛으로 연상되는 **WHITE**이며, 발광이라는 빛 반사가 있으므로 +*brightness*로 표시하고, 색상으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hue*라고 표현하였다.

(1)	<b>WHITE</b>	
	WHITE is like light	+ <i>brightness</i> , - <i>hue</i>
	WHITE is like snow	+ <i>brightness</i> , + <i>hue</i>
	WHITE is like paper, wall, cloud ...	- <i>brightness</i> , + <i>hue</i>

두 번째로 **BLACK**의 결과를 비교해보자. 세 언어의 화자들은 **BLACK**과 밤(*night*, 夜晚), 어둠(*dark*, 黑暗)을 1-2순위로 연상하였고 구체적 사물로는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머리카락(头发), 영어에서는 석탄(*coal*) 등의 어휘와 연결시켰다. 추상적 어휘로는 세 언어 모두에서 죽음(*death*, 死亡)이나 악(마)(*evil*, 邪恶)가 연상되었다. **BLACK**을 색상과 빛의 속성을 이용하여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BLACK is like night or dark**는 **WHITE is like light**의 반대개념으로 Biggam(2012)의 분류 중 공간조도의 정도가 매우 어두운(*unlit*) 단계이다. 이에 색상이 아닌 빛의 양을 기준으로 두었다.

(2)	<b>BLACK</b>	
	BLACK is like night or dark	- <i>brightness</i> , - <i>hue</i>
	BLACK is like hair, coal ...	- <i>brightness</i> , + <i>hue</i>

---

8) 인지언어학에서는 ‘정도성’을 범주의 기준으로 사용하므로 성분분석이론에서 사용되는 +, -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심사위원의 견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형사물의 빛나는 정도를 언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원형사물의 특성을 보다 간결한 방식으로 구분하기 위해 이분법적 서술방식을 선택한 것임을 밝힌다.

BLACK의 결과 중에서 죽음이라는 어휘는 세 언어에서 모두 연상되었다. 색채어의 문화적 상징을 중심으로 은유적 함의를 설명한 연구(Allan 2009: 627, Paul과 Okan 2010: 950)에서 서양의 인식에는 검은색이 죽음과 유관하지만 동양에서는 흰색이 죽음을 뜻하는데 그 이유가 장례 때 입는 옷의 색이 환유적 표현으로 남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세 언어 화자들은 공통적으로 BLACK과 죽음을 연관시켰고, WHITE의 결과에서는 어떤 언어에서도 죽음이라는 어휘가 일회성 응답으로도 연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Brown과 Brown(2006: 57)은 최근 들어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색은 검은색과 흰색으로 흰색이 가진 장례문화의 이미지는 중국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기술했는데 중국어에서 장례와 관련한 일을 baishi(白事)라고 여전히 표현하지만 색채어의 전형성과 의미적 영향력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마지막 YELLOW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보자. 중국어와 영어 화자들의 응답1순위는 분포율(7.44/25.8%)에서 큰 차이가 있으나 모두 태양이었다. 중국어 huang(黄)의 따뜻함(温暖)이라는 어휘도 태양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중국어는 이외에도 금(金子), 바나나(香蕉), 귤(橙子)과 같은 사물이 제시되었고, 영어에서는 레몬, 바나나, 꽃 그리고 행복한이라는 어휘가 연상되었다.

한국어에서는 병아리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 어리다/유치원 등의 상위권 어휘 이외에도 유치원생, 유치원선생님, 유치함, 유아, 유아교육과 등의 어휘가 연상되었다. 이 어휘들을 같은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한국어에서 YELLOW의 추상적 전형성은 ‘어리다’이고 색상에 있어서는 병아리와 개나리와 같다. 표에서 제외되었으나 구체적 사물에서 병아리와 개나리 다음으로는 ‘금(4.3%)’이 있었다.

‘어리다’범주는 자연원형이 아니며 색상이나 빛 속성의 색채스키마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아래 (3)YELLOW의 기본의미에서는 배제하였다. 이 때

해(sun)는 WHITE의 자연사물 중 하나인 빛과 동의어격인 광원에 해당하지만 WHITE가 색이 없다고 인지되는 반면 해는 노란색상으로 인식되므로 *brightness*와 *hue* 속성은 +로 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금은 Biggam(2012: 200)의 기준에서 금속표면의 반짝임(*shiny*) 혹은 광택(*lustrous*)이라는 빛의 속성이 있으므로 레몬, 바나나, 꽃과 다르게 분류하였다.

## (3) YELLOW

yellow is like sun	+brightness, +hue
huang(黄) is like sun(太阳), gold(金子)	
yellow/huang(黄) is like flower, lemon, banana ...	-brightness, +hue
노랗다 is like 병아리, 개나리 ...	-brightness, +hue
노랗다 is like 금	+brightness, +hue

지금까지 세 언어의 WHITE, BLACK, YELLOW와 연상되는 어휘들을 비교하고 기본의미를 빛 속성과 색상으로 인지되는가의 여부를 반영하여 정의해보았다. YELLOW의 전형성이 영어와 중국어에서는 태양인 반면 한국어에서는 어리다 범주의 어휘로 일치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결과는 거의 유사하였다. 우리가 색채어를 개념화할 때 바라보는 주요 대상은 자연환경과 일상적인 사물들이었고 이 중 자연 사물들은 빛 속성(발광, 반사, 반짝임)의 유무로 다시 구분될 수 있었다. 빛의 속성을 내포한 사물들은 색상이라는 질적스키마에서는 다른 사물들과 같은 범주로 묶일 수 있지만 가시성과 현저성과 같은 시각적 특징에서는 빛 속성이 없는 사물들과 영향력이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쉬운 예로 어두운 밤에 밝게 반짝이는 별은 시각적으로 현저하지만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부엉이는 아



마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사물의 빛 속성을 중심으로 WHITE, BLACK, YELLOW의 기본의미를 구체화하였으나, 사물의 이름만으로는 색상의 선명한 정도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색채어의 기본의미에 채도의 성격은 포함시킬 수 없었다. Philip(2011: 223)은 *like the bolt from blue*에서 *blue*는 맑은 하늘의 색처럼 밝고 선명한 색에 가깝지만 *talk until you're blue in the face*의 *blue*는 어둡고 탁한 색으로 연상되며 이처럼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색채어의 색은 모든 예에서 동일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일정한 맥락을 가진 텍스트에서 색채어 수식을 받는 명사어휘의 종류를 근거로 채도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다음 4장에서는 세 언어 WHITE, BLACK, YELLOW의 은유적 보편성을 색채어의 양적스키마를 중심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 4. 무엇을 느끼는가: WHITE, BLACK, YELLOW의 의미가치

본 장에서는 색채어의 양적스키마를 이용하여 세 언어의 WHITE, BLACK, YELLOW 의미의 확대과정을 논의할 것이다. 세 언어 색채어의 의미항목을 보다 분명하게 분별하기 위해 의미가치를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할 것이다.

##### 4.1 WHITE와 BLACK: 빛과 가시성을 기준으로

앞서 세 언어에서 WHITE와 BLACK이 색상으로 인식되지 않고, 빛과 어둠이라는 환경적 요소로 인지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 바 있다.

(4)

WHITE is like light	+brightness, -hue
BLACK is like night or dark	-brightness, -hue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빛의 양을 기준으로 아주 밝거나 어두침 침하거나 매우 어두운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때, 빛은 ‘보는 행위’의 전제조건으로 빛이 있는 상태에서는 색을 지각할 수 있고 주변의 사물들을 인지할 수 있다. 반면 빛이 없는 어두운 상태에서는 볼 수 없으므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다. 즉, 빛의 존재유무는 밝다와 어둡다와 같이 상태를 묘사하는 동시에 볼 수 있다와 볼 수 없다는 시각 행위와도 유관하다. 이에 WHITE와 BLACK을 Wierzbicka(1990: 302-304)의 방식을 참고하면 아래 (5-6)과 같이 다시 정의할 수 있다.

(5)

X is WHITE  
in some places, people can see very many things  
because the sun(light) is in the sky  
when one sees things like X, one can think of this

(6)

X is BLACK  
in some places, people can't see anything  
because the sun(light) is not in the sky  
when one sees things like X, one can think of this

중국어에서 bai(白)는 mingbai(明白), zhenxiang dabai(真相大白)에서 분명하다, 뚜렷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것을 시각행위를 기준으로 설명

하면 ‘볼 수 있다’ → ‘구분할 수 있다’ → ‘분명하다’, ‘뚜렷하다’ → ‘이해하다’, ‘알다’로 의미가 확장된다. 한국어의 희다 혹은 하얗다의 형태로는 이러한 용법이 발견되지 않으나 한자색채어 ‘백(白)’이 ‘명백하다’로 사용된다. 이와 반대로 ‘볼 수 없다’ → ‘구분할 수 없다’ → ‘분명하지 않다’ → ‘모르다’로 확장될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세상 물정에 감감한 사람’과 같이 검다의 파생형태로 활용된다.

세 언어에서 BLACK은 ‘불법’의 뜻으로 활용되는데 ‘볼 수 없다’ → ‘수단과 행위가 옳고 그른지 구분할 수 없다’ → ‘수단과 행위가 분명하지 않은’ → ‘정당하지 않은, 받아들일 수 없는’으로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겠다. 세 언어에서 활용되는 예는 다음 (7)과 같다.

(7) a. black market, black money

b. 黑市, 黑市交易, 黑孩子, 黑钱

c. 큰손들의 검은 돈은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어렵다.

우리말의 암시장에 해당하는 *black market*의 일반적인 정의는 합당하지 않은 방식과 경로로 운영되는 것이다. 중국어 *hei*(黑)는 시장, 교역, 돈과 연어하며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하여 호적에 올리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hei*(黑)를 사용한다. 他把大家的钱黑了에서 돈(钱)을 검게했다(黑)는 표현은 불법적으로 빼앗았다는 뜻이다. 한국어의 검다 역시 돈, 관계, 거래, 쿠테타와 연어를 형성한다.

다음으로 빛의 유무와 물리적 이동에 대해 생각해보자. 빛의 부재로 볼 수 없으면 방향성을 잃게 된다. 물리적 차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심리적 차원으로 사상되어 희망이 없는 상태를 묘사한다.

(8) a. By the time I found out, he was dead. That was the day my

whole world went black. Air look black, sun look black.

b. …, 突然觉得失去了一切希望, 眼前黑黑的。

c. 앞일을 생각하니 캄캄하다.

(8a)에서 I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세상이 검게 보인다(look black)고 표현하였고, 이 때 *black*은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한다. (8b)는 ‘모든 희망(希望)을 잃었다(失去)는 생각에 눈 앞(眼前)이 캄캄하다(黑黑)’로 해석된다. (8c)는 앞일을 생각하니 희망이 없다는 뜻으로 ‘눈 앞이 캄캄하다’, ‘캄캄한 인생’ 등으로도 활용된다.

지금까지 WHITE와 BLACK의 은유적 의미확장을 두 색채어의 양적스키마 중 하나인 빛의 유무와 가시성의 관계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세 언어에서 발견되는 의미항목은 (9), (10)과 같은 전이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9) 시각: 지각 → 이해 → (수용)

WHITE is like light - 분명한, 뚜렷한, 알다, 이해하다

BLACK is like dark - 모르다, 수단과 방식이 정당하지 않은

(10) 시각: 지각 → 심리

BLACK is like dark - 희망이 없는, 절망하는

#### 4.2 WHITE와 BLACK: 색상으로서의 밝기대비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하나의 색상으로 인지되는 WHITE와 BLACK의 의미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논의해보자. 색상의 WHITE와 BLACK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11)

WHITE is like snow	+brightness, +hue
WHITE is like paper, wall, cloud ...	-brightness, +hue
BLACK is like hair, coal ...	-brightness, +hue

세 언어에서 **WHITE**와 **BLACK**은 색상으로 인식되지만 **RED**, **GREEN**과 같은 유채색 범주의 색상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WHITE**와 **BLACK**은 무채색의 범주 중에서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으로 정의되므로 이 또한 양적스키마로 대조를 이룬다.

세 언어의 **WHITE**와 **BLACK**의 예문을 아래 (12)에서 살펴보자.

(12) a. ...he typed ...on a clean white page of foolscap...

- b. 空白, 洁白, 坦白, 淡白
- c. 공백, 결백(하다), 담백(하다)

(12a)에서 *white*는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페이지를 묘사한다. (12b)는 공백, 결백, 담백이라는 뜻으로 (12c)의 한국어에서는 한자색채어 ‘백’이 동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이라는 뜻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세 언어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WHITE**의 공통의미항목에는 (12)에서 ‘비어있는’, ‘깨끗한’과 같은 물리적 상태의 묘사도 있으나 ‘순수한’, ‘순결한’, ‘선한’ 등과 같이 심리상태로도 확장된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비유를 촉발할 수 있는 자연사물이 있는가이다. 누군가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하얀 종이나 벽에서 이와 같은 의미전이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이는 우유에서 동일한 파생과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누군가는 상한 우유를 먹고 배탈이 났던 경험을 떠올리며 **WHITE**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색채어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은 매우 다양하므로 백과사전적 지식에 의존하는 한

은유의 촉발요인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모두에게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 언어의 화자들이 보편적으로 무엇을 보는가와 자연사물의 양적스키마에 집중하여 색채어의 은유를 고찰하고 있으므로 세 언어에서는 WHITE(is like snow)와 BLACK(is like hair, coal, ...)이 반대 의미를 형성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가시성의 관점에서 눈이 우유나 종이 혹은 벽과 같은 수많은 사물에 비해 사람에게 주는 정서적 영향력이 다르다는 가정으로 영어 색채어 연구 중에는 *white*의 원형이 *snow*라고 피력한 학자들(Wierzbicka 1990, 1996, Philip 2006, 2011, Steinvall 2002, MacLaury 2005, Pakula 2010)이 다수 있다. 반면 중국어와 한국어 색채어 연구에서는 눈이 다른 사물에 비해 의미확장을 유발하는 전형성의 효과가 높다는 의견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어 코퍼스에서 ‘흰 눈처럼 순결한 첫사랑’, ‘눈처럼 하얀 피부를 지닌 아름다운 ...’, ‘검은 빨래를 눈처럼 희게 빨아놓으면 가르쳐 주겠다’에서 볼 수 있듯이 눈은 순결한, 아름다운, 깨끗한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의 문맥에서 사용되는 반면, 종이, 구름, 우유 등은 주로 흰 종이, 노란 종이와 같이 분류의 기능을 하거나 하얀 우유에서처럼 색상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어 긍정이나 부정의 가치를 표현하지 않고 있었다. 중국어에는 ‘눈처럼 새하얗다’라는 뜻의 독립적인 단어로 *xuebai*(雪白)가 존재하지만 종이처럼 하얗다(纸白)는 단어를 없다. *xuebai*(雪白)와 구조가 동일하지만 *naibai*(奶白)는 색상명 중 하나지, 우유처럼 새하얗다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

유사한 색상의 사물들과 달리 눈은 빛 속성을 가진 자연사물 중 하나이다. 눈을 부시게 할 정도이므로 발광의 속성을 가지는 동시에 표면의 반짝이는 반사도가 있어 색상으로서의 밝은 정도를 시각적으로 증가시키며, 때 묻지 않은 눈의 전형성에서 WHITE는 ‘비어있는’, ‘깨끗한’의 의미를 연상시킨다. 물리적 표면의 깨끗함은 마음상태와 정서의 영역으로 사상되

어 ‘순수한’, ‘나쁜 의도가 없음’, ‘선한’, ‘옳은’과 같은 의미로 나아간다.

반면 깨끗한 표면 위의 검고 어두운 색의 사물은 반의어인 ‘더러운’을 파생시킨다. 이 때 검은 사물은, 숯인지 석탄인지 혹은 먼지인지 그 종류는 중요하지 않고 매우 밝은 하얀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기능한다. 이 때 WHITE는 눈이라는 사물이 가진 고유한 표면 속성과 전형성을 기반으로 영역과 영역간의 사상이 일어나는 반면 BLACK의 의미전이는 PART FOR WHOLE 환유를 기반으로 은유가 시작된다는 특징이 있다. 물리적 표면의 더러움은 이후 마음상태와 정서의 영역에서 나쁜, 사악한의 의미로 확대된다. 이를 (13)에서 살펴보자.

(13) a. white lie, white magic, black magic, blackmail

b. 白善意, 白业, 黑业, 黑白颠倒, 黑心, 黑信

c. 뱃속이 희고 겹다고도 한다.

d. 그러나 우리같이 일하며 바르게 사는 농민이 어떻게 손에 흙도 안 묻히고 사기치는 놈들의 검은 속을 읽을 수 있었겠는가?

e. 판타지문학을 통해 표현되는 ‘타자’는 현대 판타지문학에 의해 문화의 ‘가려진 부분’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부정적인 검은 분야 ‘악하고, 악마적이며, 야만적인 분야’로 규정되어져 왔다.

(13a-e)에서 WHITE가 착한, 선한, 바른, 옳은의 의미로 사용되고 BLACK은 악한, 나쁜, 잘못된 등으로 해석된다. (13a)에서 *white lie*는 선의의 거짓말이며 *blackmail*은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나쁜 의도의 서신을 뜻한다. *white magic*은 선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마술이며 *black magic*과 반의 관계이다. (13b)의 baiye(白业)와 heiye(黑业)는 착한 일과 나쁜 일이라는 뜻이다. heibaidiandao(黑白颠倒)는 흑백을 전도하더라고 해석되며, 이 때 hei(黑)는 잘못된 것, 나쁜 것을 비유하고 bai(白)는 옳다, 바르다의 뜻이다. heixin(黑心)은 나쁜 마음, heixin(黑信)은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라는

뜻이다. (13c-e)에서 ‘검다’의 의미는 ‘바르다’와 반의어이며, 부정적인, 악하고, 악마적인, 야만적인과 같은 어휘로 설명되고 있다.

지금까지 WHITE와 BLACK의 은유적 확장을 보색대비의 관점에서 논의해보았다. 가장 밝고 깨끗한 표면색 위에 어두운 색은 시각적으로 매우 현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두 색채어의 의미전이 과정은 다음 (14)와 같다.

(14) 물리적 상태묘사 → 심리상태 묘사

WHITE: 아무것도 없는 → 깨끗한 → 순수한, 순결한, 선한

BLACK: 깨끗한 표면 위 이물질 → 더러운 → 사악한, 나쁜

#### 4.3 WHITE와 YELLOW: 반사도 및 채도감소와 가치전환

이번 절에서는 WHITE와 YELLOW가 다른 색상과 대비를 이루지 않은 채 하나의 색채어가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 모두로 활용되는 경우를 논의할 것이다.

세 언어에서 WHITE는 신체구조와 함께 ‘상태’를 묘사한다. ‘순백의 깨끗함이 어려 있고 하얗게 빛나는 얼굴’에서 하얗게는 건강하거나, 아름다운 모습을 연상시킨다. 반면 아래의 (15a-c)의 WHITE는 모두 질병의 상태나 부정적인 심리상태와 유관하다.

(15) a. ...Mrs. Thornton was white with fear as she preceded him into the room.

b. 医生告诉他：“不得了，肝脏长了一个癌，7公分，转移了。”他当时脸上苍白，摔地上了，他站不住了，腿都软了。

c. 다시금 영순이의 병적으로 흰 얼굴이 생각났다.



(15a)에서 Mrs. Thornton은 두려움에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고, (15b)에서 그(他)는 의사(医生)에게 암(癌)선고를 받고 충격으로 얼굴색이 하얗게(脸上苍白) 되었다. 마지막 (15c)에서 영순이의 얼굴 또한 혈색이 없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흰 얼굴로 묘사되고 있다. WHITE의 이러한 용법은 (16a-c)와 같이 눈과 연어를 형성하는 예문에서도 볼 수 있다.

(16) a. In the reflection of the other he saw a scarecrow, hair wild, eyes white with fear, mouth open and sucking air.

b. 你了解他的为人吗? 先生白了他 一眼: 那还用了解吗!

c. 썩부쟁이는 눈을 하얗게 흘겼다.

(16a)의 *eyes white with fear*에서 *white*는 *eye*와 함께 사용되어 공포로 흰자위를 드러낸 상태를 묘사한다. (16b)의 *baiyan*(白眼)은 흰자위로 그를 보았다는 뜻으로 (16c)의 한국어 예문과 동일한 뜻이다. 눈동자 색은 인종간 다를 수 있지만, 눈은 눈동자와 흰자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눈동자가 아닌 흰자위로 눈이 묘사되는 것은 정상적이거나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또한 흰자위로 상대방을 쳐다보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비난의 감정을 드러낸다. 눈과 WHITE의 연어관계는 비정상적 상태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다. (15)와 (16)의 WHITE는 빛이나 눈이라는 자연사물에 내재된 속성이 의미전이를 촉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의 실제세계에서 눈동자나 얼굴이 광원처럼 빛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얼굴색이 무채색 범위에서 가장 밝은 색과 동일할 수도 없다.

즉 신체어와 결합한 WHITE는 WHITE의 마지막 유형, WHITE (is like paper, milk, ...)에 해당한다. 이 WHITE는 우리가 종이나 구름의 내재적 기능에서 느끼는 고유한 속성을 중심으로 의미전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색상의 유사성을 기술하는 것이 주된 용법이고 신체부위와 결합하면 부정적 가치를 만든다. 다시 말해 세 언어에서 +brightness 범주의 WHITE는 긍정의

의미로 전이되는 반면 -brightness범주의 WHITE는 부정적 가치를 가진다.

이번에는 YELLOW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는 앞서 세 언어의 YELLOW를 (17)과 같이 구분하였다.

(17)	YELLOW	
yellow is like sun		+brightness, +hue
huang(黄) is like sun(太阳), gold(金子)		
yellow/huang(黄) is like flower, lemon, banana ...		-brightness, +hue
노랗다 is like 병아리, 개나리 ...		-brightness, +hue
노랗다 is like 금		+brightness, +hue

영어에서 빛 속성의 전형적 사물은 태양이었지만 코퍼스 예문 중에서 *yellow*와 *sun*의 연어관계를 조사하였을 때 두 단어가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긍정의 의미로 확장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blocking out the bright sun, the fiery orb that was so yellow, so cheerful...*, and *the cheerful yellow sun disappeared*과 같은 예문에서 *yellow sun*은 밝고 즐거운 기분과 유관함을 알 수 있다. 중국어 코퍼스에서 태양(太阳)이 포함된 500개의 예문 중에서 색채어가 결합된 예문은 *hei*(黑)였는데 이는 태양 표면의 흑점을 말한 것이지 태양을 수식하는 것은 아니었다. 햇빛(阳光)이 포함된 500개의 예문에서도 색채어와의 연어관계는 발견되지 않아 중국어 *huang*(黄)과 태양의 관계에서 유발되는 은유적 의미는 논의하기가 어렵다. 다만 햇빛(阳光)의 경우는 원어민화자들의 응답과 같이 따뜻함(温暖)과 연어관계를 자주 이루었다. 신체적 경험 중에서 온기, 따뜻함은 추위에 비해 긍정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어화자와 중국화자들에게 태양의 색으로 인식되는 *huang*(黄)은 긍정적인 대상으로 여겨진

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어 화자들과 중국어 화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연상되었던 금은 표면 반짝임이라는 빛 속성을 가지는데 이는 유사한 색의 광물들 사이에서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현저한 특징이자 경제적 가치에서 긍정의 의미를 부여한다. 한국어에서는 한자색채어 *huang*(黄)이 황금기, 황금비, 황금율, 황금시대, 황금어장 등으로 활용되어 중요한, 풍요로운, 조화로운의 의미로 확장된다. 중국어에서는 가장 중요한/좋은 위치(黄金位置), 가장 좋고 풍요로운 시대(黄金时代), 웃는 얼굴에서 부가 생긴다(黄金得从佛口出)에서 ‘중요한’, ‘좋은’, ‘부유한’의 의미로 확장된다.

반면 세 언어에서 YELLOW가 부정적인 의미로 활용되기도 한다. 먼저 영어 예문인 (18)을 보자.

- (18) a. The new blades of grass would start to peek out from the *sad, pale yellow* lawns and ...  
 b. ...my dear old Faur in the corner, head wrapped chin to top with a dirty old *yellow* rag...  
 c. We never thought your heart was *yellow*.

(18a)에서 잔디밭의 색은 *sad*와 *pale*의 수식을 받고 있다. *pale*의 수식을 통해 잔디밭의 색이 채도가 높은 선명한 노란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동시에 *sad*라는 슬픈 감정과 연어를 형성하고 있다. (18b)에서 *yellow*는 *dirty, old*의 수식을 받아 오래되어 빛 바랜 색상이 연상된다. (19c)의 *yellow*는 ‘겉이 많은, 비겁한’의 의미로 서양문화에 영향을 끼친 4체역 설을 고려해야 하는 문맥이다. 그러나 신체기관인 담즙의 색에서 의미가 확대되었고 OED의 정의에서 담즙의 색은 일반적으로 *yellow*와 *green* 모두로 기술된다는 점에만 주목한다면 (18c)의 *yellow* 또한 밝고 선명한 색은 아니다. 이 세 예문에서 *yellow*의 특징은 채도가 낮은 색인 동시에 시뉘,

퇴색, 비겁함과 같은 부정적 의미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어 huang(黄)에서도 발견된다. 다음 (19)의 예를 보자.

- (19) a. 蔫了就扔了, 而且蔫的过程很让人伤心, 很像美女风光一时后变成黄脸婆的过程…  
b. 而身体不健康的人的头发, 枯黄无光泽。  
c. 她的脸黄白瘦削, 但长得十分秀气, 如果不是有病, …  
d. 等四叔出去了, 祖父的疲倦的暗黄脸上露出一丝笑容, …  
e. 白度说: “这事要黄了 咱也就谁也顾不上谁了, …

(19a)에서 화자는 꽃이 시드는 상황을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싱싱하고 아름다운 상태의 꽃은 미녀(美女)로 시들어 버린 꽃은 노란 얼굴의 늙은여자(黄脸婆)로 묘사하고 있다. 이 때 노란얼굴색은 수척하고 건강하지 않은 모습인데 (19b-d)의 예문을 통해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묘사하는 huang(黄)이 채도가 낮은 흐릿하고 어두운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b)에서는 건강하지 않은(不健康) 사람의 머리카락(头发)의 색은 시들어 누렇게(枯黄), (19c)에서 병에 걸린(有病) 얼굴색은 누르고 희다(黄白). (19d)의 피곤한(疲倦) 할아버지(祖父)는 검고 누런 얼굴(暗黄脸)이다. 마지막 (19e)에서 ‘이 일이 만약(这事要) 실패하게 되면(黄了)’에서 중국어의 huang(黄)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함, 실패와 같은 뜻으로 확장되는데 시들어 퇴색하고 남아가는 과정과 관련한 색상에서 실패라는 의미가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노랗다의 활용도 이와 동일하다.

- (20) a. 김을 먹어 얼굴이 노랗게 질려 있었다.  
b. 헤지는 긴 조회시간마다 노랗게 쓰러졌다.  
c. 흙일로 손등과 손가락이 거북껍질처럼 튼데다가 농약 때문에 눈알

- 이 노랗게 변한 농사꾼이 속삭이는 것도 잊고 욕을 해댔다.
- d. 눈앞이 노랗고 석탄가루를 직통으로 마신 목이 칼칼하여 담배도 제 맛이 나지를 았았다
  - e. 얼굴에 가득 낀 기미와 누런 피부는 그녀를 칠십 노파처럼 보이게 했다.
  - f. 난 정숙이의 누렇게 뜬 얼굴을 측은히 쳐다보며 묵묵히 얘기만 들었다.
  - g. 삭수가 노랗다/누렇다

(20a)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20b-c)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노랗다’로 묘사되고 있다. (20d)에서 눈앞이 노랗다는 표현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와 절망적인 상태 모두를 표현할 수 있다. (20e-f)에서 노랗다의 모음교체형<sup>9)</sup>인 ‘누렇다’가 신체어와 연어하여 질병을 표현하므로 (20a-d)의 ‘노랗다’는 ‘누렇다’와 색상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20e)에서 삭수가 노랗다는 희망이 없음을 뜻하므로 중국어의 *huang*(黄)이 실패의 의미로 확장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코퍼스 상에서 부정적인 감정, 질병, 희망이 없음과 같은 항목이 노랗다의 모음교체형인 ‘누렇다’와도 동일하게 연어를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정적 가치를 표현하는 한국어의 노랗다는 ‘누렇다’처럼 채도와 명도가 낮은 색에 해당한다.

4.3절에서 우리는 세 언어의 **WHITE**와 **YELLOW**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활용되는 예를 보았다. 눈, 해 그리고 금은 모두 발광과 반사라는 내재적 속성이 매우 깨끗하고 밝은 상태, 유쾌한 감정과 온기 그리고 중요함, 부유함과 같은 긍정적 가치를 유발하였다. 반면 **WHITE**와 **YELLOW**는 신체어와 결합하여 질병과 비정상, 부정적인 감정상태를 묘

---

9) 노랗다와 누렇다는 “ㄱ”, “ㄷ”형의 교체가 대상에 대한 [+공정]과 [-공정]의 평가 태도나 심리상태를 드러낸다. “ㄱ”형이 평가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좋은 감정을 드러내는데 비해 “ㄷ”형에는 부정적인 평가태도가 드러난다(손세모들 2000: 154)

사하였다. 이 때 WHITE, YELLOW는 그 색상으로 인지되는 특정 사물이 가진 고유한 속성이나 기능으로 인식되지 않고 채도와 명도가 모두 감소한 색상으로만 인지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즉, 퇴색, 시듦, 늙음, 질병, 비정상, 겁에 질린과 같은 유사한 상태묘사에 사용된 WHITE와 YELLOW는 고채도와 고명도의 순색 혹은 초점색이 아니며, 두 색상의 경계범주에 위치하여 ‘창백한, 혈색없는’과 같이 색상에서 오히려 유의어 관계를 이루게 된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보편성’을 중심으로 색채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계통과 문화가 상이한 영어, 중국어, 한국어 화자들이 연상한 색채어의 원형들은 매우 유사하였고, 색채어가 주는 추상적인 느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빛 속성이 시각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과 채도의 감소라는 특징을 중심으로 색채어 은유의 의미가치를 분류하고 확대과정을 설명해보았다. 그 결과 (1) 세 언어에서 빛 속성을 내재한 자연원형으로 인식되는 색채어는 모두 긍정의 의미로 확장되며 (2) 빛 속성을 가진 자연원형은 그 사물 고유의 기능과 특성을 바탕으로 긍정의 의미가치를 유발하였다. (3) 빛 속성이 없는 WHITE, YELLOW의 다수의 자연사물들은 색상이라는 특징으로만 기능을 하며 특히 신체어와 결합 시 부정적인 상태를 묘사하는데 이 때 두 색채어가 묘사하는 색상은 밝거나 선명한 색이 아닌 흐리고 어두운 색이다. 이에 색채어의 의미가치는 색상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색으로 인지되느냐와 어느 정도로 밝고 선명인가가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색채어의 주 기능은 분류와 기술이므로 수많은 사물과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색채어를 색명의 관점에서 논의하면 사물 간 공유되는 특성이 존

재하지 않으므로 언어 간 색채어의 보편적 양상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 대상은 어떤 특성으로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는지 고찰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언어와의 대조연구에서도 또 다른 결과와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치를 중심으로 색채어 은유를 설명하였고 색채어가 인종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중립’적 가치로 분류되는 개념은 제외하였으므로 연구범위가 좁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백과사전적 지식에 근거한 설명이 모두의 동의를 이끌기에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각적 보편성과 양적스키마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언어 간 색채어 비교를 시도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언어의 색채어(WHITE, BLACK, YELLOW)에서 발견된 특징은 채도와 명도 모두에서 BRIGHT IS GOOD이라는 하나의 은유로 요약될 수 있겠다.

### <참고 문헌>

- 김지인(2009). *Semantic Extensions of Basic Color Terms in English and Korean*.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마회화(2009). 기호학으로 본 한중 색채어의 문화정보 -"희다/노랗다"류 색채어를 중심으로. <한국(조선)어교육연구> 4(0)호,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 421쪽~432쪽.
- 문은배(2011). 색채디자인교과서. 경기: 안그래픽스.
- 박경선(2001). 영어와 한국어의 색채어와 신체어에 나타나는 개념적 은유. <담화와 인지> 8(1)호, 담화 인지언어학회, 69쪽~83쪽.
- 우박(2011). 한,중 빛깔말의 인지의미론적 대비 연구, <문창어문논집>, 48호, 문창어문학회, 137쪽~177쪽.
- 유길문(2009). 중한 색채어에 나타난 은유적 의미의 탐구. <한국(조선)어교육연구>, 6호,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94쪽~306쪽.
- 유춘정(2013). 한·중 색채어 관용표현의 대조연구: 기본 오색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애(2008). 국어 색채어의 의미와 시각의 보편성. <한국어 의미학> 27호, 한국어 의미학회, 151쪽~178쪽.
- 세연령(2013). 韓·漢 기본 색채어의 의미 대조. <中國人文科學>, 53호, 중국인문학회, 171쪽~185쪽.
- 손세모돌(2000). 국어 색채어 연구. <한말연구>, 6호, 한말연구학회, 133쪽~165쪽.
- 주보현(2015). 감정표현 색채어 연구 : 영어와 중국어를 중심으로 <언어과학>, 22(1)호, 한국언어과학회, 95쪽~118쪽.
- Chong, C. (2008). 색채어에 투영된 상징의미 변천 考: 중국어의 흰색(白)과 검정색(黑)을 중심으로. <中國語文論集叢刊>, 22호, 중국어문논역학회, 3쪽~20쪽.
- Allan, K.(2009). The Connotations of English Colour Terms: Colour-based X-phemisms. *Journal of Pragmatics* 41, 626-637.
- Berlin, B. and P. Kay. (1969). *Basic Color Terms: Their Universality and Evolutio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iggam, C.(2012). *The Semantics of Colour: A Historical Approach*. Oxfo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J. and J. Brown. (2006). *China, Japan, Korea: Culture and Customs*. South Carolina: BookSurge.
- Evans, V. (2009). *How Words Mean: Lexical Concepts, Cognitive Models, and Meaning Construction*. Canada: Oxford University Press.
- Geeraerts, D. (2013). The Interaction of Metaphor and Metonymy in Composite Expressions. In Dirven, R. and R. Porings. (eds.), *Metaphor and Metonymy in Comparison and Contrast*. Berlin: Mouton de Gruyter. 435-465.
- Lawrence, M. (2014). *Sensory Processes: The New Psychophysics*. New York: Academic Press.
- Li, Z. (2011). A Study on Cognitive Models in Color Term Translation Between English and Chinese. *International Forum of Teaching and Studies* 7(1), 49-58.
- MacLaury, R. (2005). So-called Brightness in Color Ethnography: Potentials for LCD Technology in Fieldwork and Categorization Research. *Cross-Cultural Research* 39, 205-227.
- Paul, S. and A. Okan. (2010). Colour: Cross Cultural Marketing Perspectives as to What Governs our Response to It. *Proceedings of ASBBS Annual Conference: Las Vegas 17*, 950-954.
- Pakuła, L. (2010). Seeing through Dictionaries: On Defining Basic Color Terms in English, Japanese and Polish Lexicography. *Proceedings of the XIV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1372-1388.



- Philip, G. (2006). Connotative Meaning in English and Italian Color-word Metaphor. *Metaphorik* 10, 59-93.
- Philip, G. (2011). *Colouring Meaning: Collocation and Connotation in Figurative Language*. Amsterdam: John Benjamins.
- Popovic, L. (2007). Prototypical and Stereotypical Color in Slavic Languages: Models Based on Folklore. In MacLaury, R., and D. Dedrick. (eds.), *Anthropology of Color: Interdisciplinary Multilevel Modeling*. Philadelphia: John Benjamins. 405-420.
- Roberson, D., Davies, I. and Davidoff, J. (2000). Color Categories are not Universal: Replications and New Evidence from a Stone-age Cultur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29(3), 369-398.
- Steinvell, A. 2002. *English Color Terms in Context*. Ph. D. Dissertation. Umea Univerisy: Skrifter fran moderna spark 3.
- Tokarski, R. (2004). *The Semantics of Color Terms in Contemporary Polish*. Lublin: Wydawnictwo Uniwersytetu Marii-Curie-Skłodowkiej.
- Wang, X. (2012). Semantic Comparison Between Chinese and English Idioms Containing Color Words. *Canadian Social Science* 8, 174-177.
- Wierzbicka, A. (1990). The Meaning of Color Terms: Semantic, Culture and Cognition. *Cognitive Linguistics* 1, 99-150.
- Wierzbicka, A. (1996). *Semantics: Primes and Univers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erzbicka, A. (2006.) The Semantics of Colour: A New Paradigm. In Biggam, C. and P. Kay. (eds.), *Progress in Colour Studies*.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24.
- Wierzbicka, A.(2008). Why There are No 'Colour Universals' in Language and Thought. *Th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14(2), 407-425.
- Wyler, S. (1992). *Color and Language: Color terms in English*.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 Xing, J.(2009). *Studies of Chinese Linguistics: Functional Approache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Zeng, J. and Y. Yuan. (2016). The Implicit Negation and Counter-Expectation of bai in Mandarin Chinese. *Chinese Lexical Semantics: 16th Workshop, CLSW 2015*. In Qin, L. and H. Gao. (eds.), Beijing: Springer. 47-61.
- 金容云(2009). 中国色彩语比较研究. 山东大学, 博士论文
- 廖正刚(2011). 英汉基本颜色词跨范畴现象对比研究, 东北师范大学, 外国语言学与应用语言学 博士论文.

216 이증언어학 제66호(2017)

薛亚红(2013).英汉颜色词次范畴对比研究, 东北师范大学, 英语语言文学, 博士论文。

주보현(Ju, Bohyun)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전화번호: 070-4132-0710

전자우편: fuxuan@pusan.ac.kr

박기성(Park, Kiseong)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전화번호: 051-510-2043

전자우편: ksepark@pusan.ac.kr

접수일자: 2017년 1월 30일

심사(수정)일자: 2017년 3월 3일

게재확정: 2017년 3월 17일